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4년 10월 6일(월)

【 미국 경제 동향 】

- 1) 9월 중 고용호조, 비농업취업자 24만 8,000명 증가, 실업률 5.9%
- 2) 9월 중 ISM 비제조업지수 58.6으로 하락

【 해외 경제 동향 】

- 1) 세계은행, 2014년 중국 성장률 7.4%로 하향전망
- 2) 12개 글로벌 은행, '원스톱 채권 쇼핑몰' 만들 예정

【 산업·시장 동향 】

- 1) 벡톤디킨슨, 케어퓨전 122억달러에 인수

【 미국 경제 동향 】

1) 9월 중 고용호조, 비농업취업자 24만 8,000명 증가, 실업률 5.9%

- 지난 3일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시장전망치 21만 5000명을 큰폭으로 상회하는 24만 8,000명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
- 한편, 8월 비농업신규취업자수는 14만 2000명에서 18만명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7월 기록도 21만 2000명에서 24만 3000명으로 조정됨. 또한, 실업률도 5.9%를 기록하며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반면,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센트 낮아진 24.53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5에서 34.6시간으로 증가함
- 전문가들은 매출 증가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 속도가 빨라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

2) 9월 중 ISM 비제조업지수 58.6으로 하락

- 지난 3일 미 공급자관리협회는 미국의 서비스업종의 체감경기 지표로 활용되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8.6을 기록, 이는 이전치 59.6을 하회했다고 발표
- 반면, 3/4분기 평균 비제조업 PMI는 2004년 이래 분기별 최고치를 기록
-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 서비스업 체감경기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분석

【 해외 경제 동향 】

1) 세계은행, 2014년 중국 성장률 7.4%로 하향전망

- o 지난 6일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6%에서 7.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
 - 이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7.5%)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또 내년 전망치도 7.5%에서 7.2%로, 내후년은 7.5%에서 7.1%로 각각 하향 조정
- o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계은행은 “지방정부 부채와 쉐도우 बैं킹(그림자금융), 과잉설비, 높은 에너지 수요,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들이 투자 및 산업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
 - 다만, 중국 경제가 그동안 미뤄온 국영기업과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 이런 조치들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언급
- o 이와 관련,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3/4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운영은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들어 있고 금융 상황도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물가도 안정적”이라면서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신축성 있게 활용해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는 부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나 금리인하 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2) 12개 글로벌 은행, ‘원스톱 채권 쇼핑물’ 만들 예정

- o 지난 5일 WSJ은 채권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글로벌 은행이 ‘원스톱(one-stop) 채권 쇼핑물’ 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넵툰’ (Neptune)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에는 BNP파리바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HSBC JP모간체이스 소시에테제네랄 등이 참여할 예정
 - ‘넵툰’ 은 채권시장에서 발행자와 투자자, 기존 채권 거래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일종의 원스톱 채권 쇼핑물 개념
- o 12개 은행은 각각 3만유로(약 4016만원)를 출자해 ‘넵툰’ 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
- o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투자 수요에 걸맞은 채권 재고를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

【 산업·시장 동향 】

1) 벡톤디킨슨, 케어퓨전 122억달러에 인수

- 지난 5일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벡톤디킨슨이 의약사업 강화를 위해 경쟁사인 케어퓨전을 122억달러(약 12조94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
 - 벡톤디킨슨은 현금으로 주당 49달러에 케어퓨전 주식을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사주 1주당 0.0777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 벡톤디킨슨은 이번 인수를 위해 인수 자문사인 골드만삭스그룹으로부터 91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인수가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 양측은 주주총회 결의와 규제당국의 인수합병(M&A) 승인 절차는 아직 보류상태
- 벡톤디킨슨측은 “이번 합병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합병 첫 해 벡톤디킨슨의 주가 순이익(EPS)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세전 비용도 한 해 2억5000만달러씩 줄일 수 있는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발표